

군 생활, 무엇에 도움이 될까?

- 전체 응답자의 55.8%가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.
-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(고등학교 54.6%, 4년제 대학 56.2%), 전투병과(56.8%)보다는 비전투병과 출신이(58.4%), 사병(57.2%)보다는 부사관 또는 장교(76.8%) 출신이 높게 나타남.
- 세부 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는 인내심이 4.18점(5점 만점)으로 가장 높고, 능력 개발 분야는 2.92점으로 가장 낮음.
-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외향성, 친화성, 성실성이 높을수록 군 복무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군 복무 경험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 있음.

-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은 병역 의무로 인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거나 단절된다는 특수성이 있음.
 - 특히 대학 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은 학업의 단절이나 졸업시기의 지연, 자기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.
- 반면, 군 생활을 통해 역량이나 무형적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.
- 이 연구는 군 복무 경험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지,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 자료

-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(KEEP: Korean Education & Employment Panel)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를 분석함.
 - 분석 방향은 첫째,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와 세부 분야별(능력 개발,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, 체력 및 건강, 리더십, 인내심)로 군 생활이 도움이 된 정도를 5점 척도(① 전혀 그렇지 않다, ② 그렇지 않다, ③ 보통이다, ④ 그렇다, ⑤ 매우 그렇다)로 측정하여 학력, 병과, 계급별로 분석함.
 - 둘째는 성격 특성¹⁾을 성실성, 외향성, 친화성으로 측정하여 성격 특성에 따른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를 분석함.
- 분석 대상은 4차(2007)~9차(2012)년도 조사자 중 군 복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,226명을 대상으로 함.
 - 학력별로는 고졸자 551명, 전문대학 985명, 4년제 대학 1,690명이며, 계급별 분석 대상은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 출신으로 사병 출신은 2,727명, 부사관/장교 출신은 43명임. 병과의 경우 육군에 복무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하였으며, 전투병과 출신은 1,581명, 비전투병과(기술, 행정, 특수) 출신은 683명임.

| 각주 |

- 1) 성실성: 사회적 규칙, 규범,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
외향성: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, 또는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는 정도
친화성: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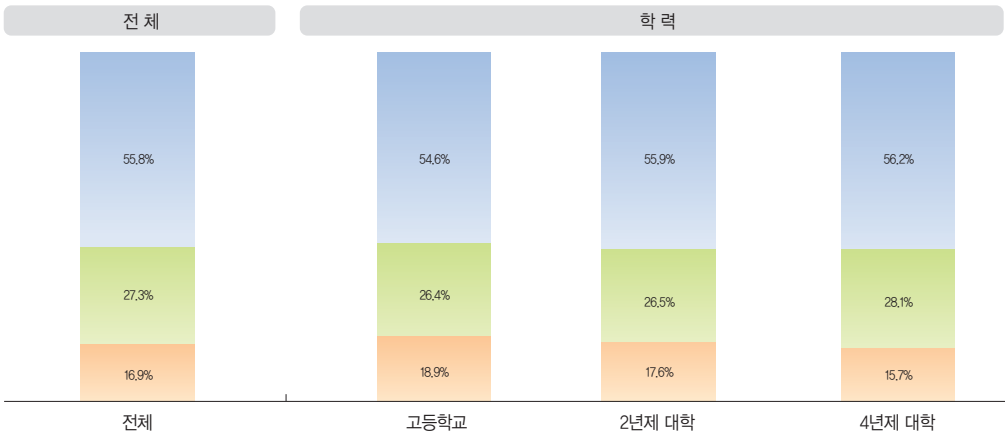
02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| 학력과 계급이 높을수록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

-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55.8%이고,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6.9%임.
-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54.6%, 전문대학 졸업자의 55.9%, 4년제 대학 졸업자의 56.2%가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학력이 올라갈수록 군 복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짐.



| 주 |
1) 부정은 '① 전혀 그렇지 않다'와 '② 그렇지 않다', 보통은 '③ 보통이다', 긍정은 '④ 그렇다'와 '⑤ 매우 그렇다'로 묶어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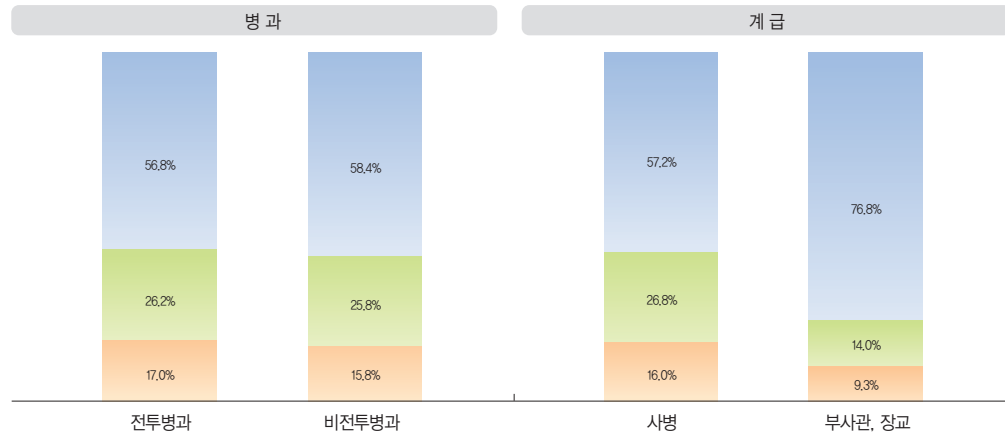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학력별 군 복무 경험의 향후 도움 정도

- 주특기별로는 전투병과 출신자의 56.8%, 비전투병과(기술, 행정, 특수 등) 출신자의 58.4%가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.
- 계급별로 살펴보면,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병이 57.2%, 부사관 또는 장교급에서는 76.8%로 나타나 계급에 따라 차이가 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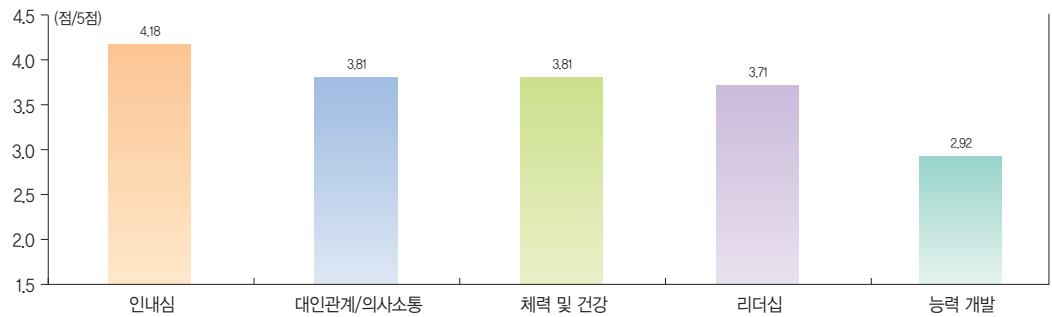
| 주 |
1) 부정은 '① 전혀 그렇지 않다'와 '② 그렇지 않다', 보통은 '③ 보통이다', 긍정은 '④ 그렇다'와 '⑤ 매우 그렇다'로 묶어서 분석



[그림 2] 병과별 · 계급별 군 복무 경험의 향후 도움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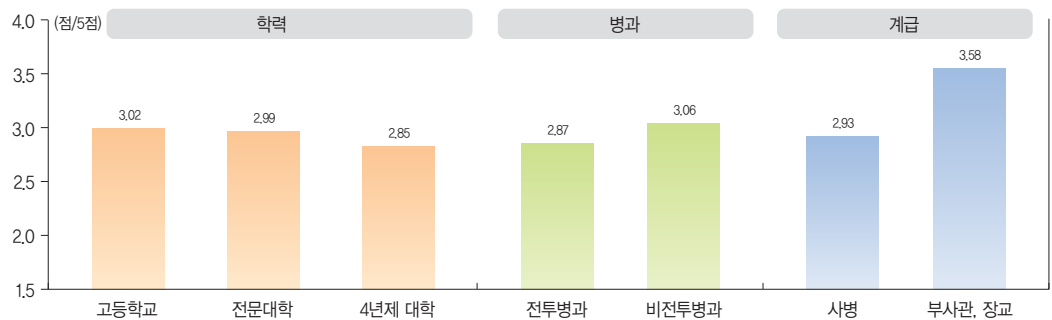
| 군 복무 경험은 인내심, 대인관계, 건강, 리더십에 도움이 되나 능력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

- 세부 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, '인내심'은 4.18점, '대인관계 및 의사소통'과 '체력 및 건강'은 3.81점, '리더십'은 3.71점이나 '능력 개발'은 2.92점으로 가장 낮음.
 -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해 보임.



[그림 3] 세부 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- 학력별로 군 생활이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 정도를 살펴보면, 고등학교 졸업자는 5점 만점의 3.02점, 전문대학은 2.99점, 4년제 대학은 2.85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.
- 주특기별로는 전투병은 2.87점, 비전투병과(기술, 행정, 특수)는 3.06점으로 비전투병과 출신이 군 생활이 능력 개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.
- 계급별로는 사병 출신이 2.93점인데 비해 부사관, 장교는 3.58점으로 계급 간에 큰 차이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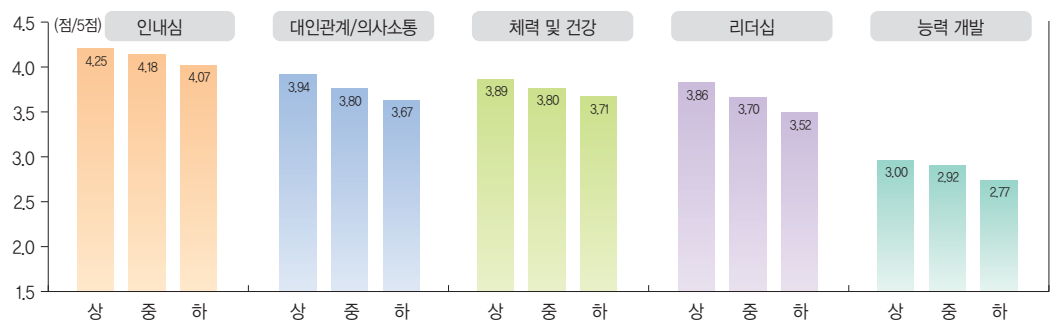


[그림 4] 집단별 · 세부 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03 성격 특성과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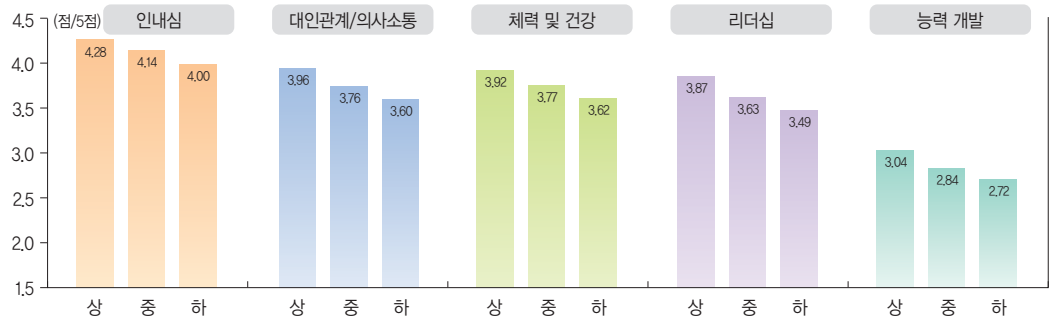
| 외향성, 성실성, 친화성이 높을수록 군 복무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인식

- 외향성이 높은 경우, 능력 개발, 체력 및 건강, 대인관계/의사소통, 리더십, 인내심 분야에서 군 생활이 도움이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함.
 - 외향성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, 군 생활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점 만점 중 4.25점, 대인관계/의사소통은 3.94점, 체력 및 건강은 3.89점, 리더십 3.86점, 능력 개발은 3.00점임.
 - 반면, 외향성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, 군 생활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4.07점, 대인관계/의사소통 3.67점, 체력 및 건강 3.71점, 리더십 3.52점, 능력 개발은 2.77점으로 외향성이 높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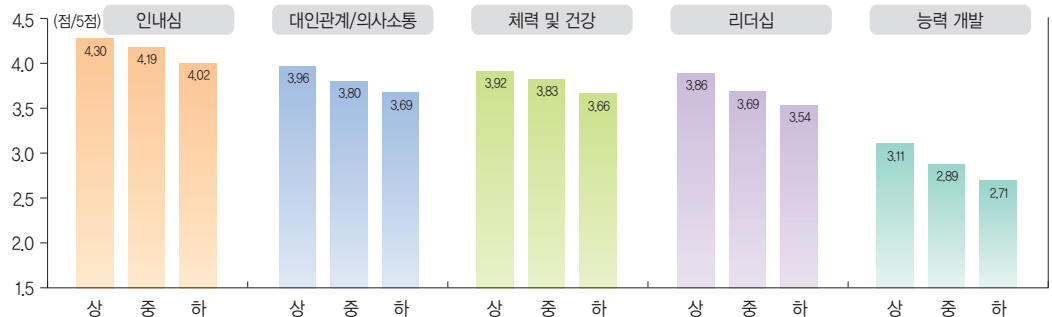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외향성 수준별 · 세부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- 친화성이 높을수록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, 향후에도 군 복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친화성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, 군 생활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4.28점, 대인관계/의사소통 3.96점, 체력 및 건강은 3.92점, 리더십 3.87점, 능력 개발은 3.04점임.
 - 반면, 친화성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, 군 생활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4.00점, 대인관계/의사소통 3.60점, 체력 및 건강 3.62점, 리더십 3.49점, 능력 개발은 2.72점으로 친화성이 높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.



[그림 6] 친화성 수준별 · 세부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- 성실성의 경우에도 외향성, 친화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.
 - 성실성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, 군 생활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정도는 4.30점, 대인관계/의사소통 3.96점, 체력 및 건강 3.92점, 리더십 3.89점, 능력 개발은 3.11점임.
 - 성실성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, 군 생활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정도는 4.02점, 대인관계/의사소통 3.69점, 체력 및 건강 3.66점, 리더십 3.54점, 능력 개발은 2.71점임.



[그림 7] 성실성 수준별 · 세부분야별 군 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

04 시사점

- 군 복무 경험이 인내심과 체력, 대인관계능력, 리더십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나 능력 개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 - 실제 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, 응답자의 67.3%가 군 복무 기간 중 부대 내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능력 개발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.
 - 군 복무 경험이 능력 개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.
- 군 복무 기간 중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되, 개인 성향이나 전공,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.

류 지 영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)

신 동 준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